

[시티 & 피쳐]

광주·전남 방문의 해 외국 관광객 유치 본격화

광주시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일·중 관광객 전문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청 캠퍼(사전답사여행)를 갖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객 유치 지역을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해외동포의 모국방문도 적극 추진한다. 숙박비와 차량 임차비 지원 등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도 내놓았다.

광주시, 日·中 전문여행사와 업무협약 캠 투어·새상품 개발...인센티브도 확대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시는 12일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일본관광객 전문여행사인 (주)전국관광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현지 상품설명회 등 공동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이 여행사는 올해 7만6천명의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시는 오는 3월 초에는 베이징 중국국제여행사와도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상품 개발과 모객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여행사 캠 투어=해외 관광객 유치 다변화와 재외동포 모국방문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캠퍼도 함께 추진된다. 오는 15일부터 이들 동안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한국상품 전문 여행사 관계자 12명을 초청해 광주 지역 신규 관광상품을 소개한다.

세계 70여개국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유에스여행사를 파트너로 진행되는 이번 캠퍼에서 시는 숙박·음식·쇼핑의 경우 시내 관광호텔과 호텔, 전통식당으로, 관광지는 광주 인근 관광명소를 포함시키는 등 신규 관광상품 개발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캠투어 기간에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들 여행사 관계자들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오는 4월 중 미국

에서 관광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인센티브 확대=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시는 기존 1인당 1~3박에 1만~2만 원을 지원하던 숙박비에 더해 광주시내 관광호텔에 1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200명 이상 송출할 경우 200만원을, 해외 단체관광객 10명 이상을 차량을 이용해 방문케한 경우 15~20만원의 차량임차비를 여행사에 지원키로 했다.

박해구 관광과장은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여행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며 "주 2~3회 운영되던 중국과 일본의 광주 관광상품이 매일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상품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는 12일 프라도호텔에서 일본관광객 전문여행사인 (주)전국관광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졸업 축하라고 하기엔... 12일 오전 열린 광주시 남구 모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밀가루를 뿌리며 졸업을 축하하고 있다. 광주 시내 대부분 중·고교가 이번 주 내에 졸업식을 마치고, 초등 학교는 20~23일 졸업식을 갖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가정 화재경보기 220대 북부소방서 무상 보급

광주북부소방서는 12일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220대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에게 무상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재감지기는 불이 났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는 장치로, 지역 후생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감지기 210개와 시소방본부가 지급한 10개를 다음 달까지 각 가정에 설치해 줄 방침이다. 북부소방서는 이번에 보급되는 감지기를 포함,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400여 개의 화재감지기를 소외계층 가정에 보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기 대응력이 미흡한 독거노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민간단체 공익사업 13억5천만원 지원

광주시는 올해 민간 사회단체가 벌이는 공익사업에 13억5천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민간단체에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9억원을, 비영리 등특단체들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2억 5천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기초질서 지키기를 비롯해 시의 주요 시책에 맞는 '빛고을 사랑운동'에는 3억원이 지원된다. 시는 시민단체들의 사업 신청 접수

가 완료되면 3~4월 중 시민단체와 의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리알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원단체들로부터 자체 평가 계획서를 제출받아 실적 우수한 단체에는 내년 공모 때 가산점이나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여대 미용교사 '산실' 올 중등 임용고사 전국 13명중 9명 차지

"미용교사 하면 광주여대인 거 아세요." 광주여대가 미용부문 임용고사에서 높은 합격률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11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13명의 중등 미용교사를 모집한 2008학년도 중등교사 임용고사 합격자 발표 결과 전체의 70%에 달하는 9명이 광주여대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청별로 ▲서울시교육청 2명(김지선·박가람) ▲경기도교육청 2명(권세화·정은민) ▲강원도교육청 1명(박유정) ▲충북도교육청 1명(이은민) ▲제주도교육청 3명(김신영·문정민·이수정)이 각각 최종 합격했다. 미용 관련 학과로는 4년제 대학 중 전국 최초로 지난 1999년

개설된 광주여대 미용학과과는 중등 미용교사 임용이 첫 실시된 2003년에 5명을 합격시키는 등 ▲2004년 3명 ▲2005년 2명 ▲2006년 8명 ▲2007년 8명 등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모두 37명의 미용교사를 배출했다. 광주여대 미용학과과는 1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10%에게 교과과정 이수 자격을 부여하고, 과정 이수 후에는 중등 2급 교과사(미용) 자격증을 준다. 학년당 정원은 170명이다. 광주여대 관계자는 "광주여대 미용학과가 임용고사에서 맹위를 떨치자 다른 4년제 대학들이 앞다퉈 미용 관련 학과를 신설하기도 했다"며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국에서 학생들이 입학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성림기자 camus@kwangju.co.kr

토지 손실 보상 안방서 받으세요

시 '찾아가는 서비스'

광주시가 각종 건설 사업에 따른 토지 손실 보상 협의를 위해 주민들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친다. 시는 "도로 등 건설사업으로 토지 관련 보상을 받게된 주민들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손실보상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건설관리본부를 종합건설본부로 확대·개편,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보상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 담당 공무원이 토지 손실 보상 열람과 누락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해 공사 현장 사무소나 관할 주민자치센터로 출장,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또 광주시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들의 경우 직접 주거지로 찾아가 민원을 상담, 처리해 주고 있다. 한편, 기존에는 손실 보상 대상자가 열람 공고 통지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 법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김동률 종합건설본부장은 "민원인을 직접 만나는 등 주민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한편 각종 공사의 조기착공 등 현안사업의 추진에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송정역 일대 병목 해소 도로 확장·개통 잇따라

급속한 교통체증 구간이었던 광주시 광산구 송정역 일대 교통흐름도가 바뀌고 있다. 광주시가 최근 광주지하철 도산역~송정지구대간 도로 300m를 기존 2차로에서 6차로로 대폭 확장함에 따라 송정서초교 앞 일대의 차량소통이 원활해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송정서초교 앞 길은 출·퇴근 병목현상이 빚어졌던 대표적인 혼잡도로였다. 또 오는 3월에는 국도 13호선과 곧바로 연결되는 도로(150m·송정역~국도 13호선)도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어서 송정역 일대 주민들의 나주 방면 진출·출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도 13호선은 광주공항 인근에서 나주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주로 이용했던 노선이다. 시는 또 송정역~평동산단간 총연장 1천40m 구간 가운데 송정지구대~평동산단간 860m 구간의 조기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규 노선 확충으로 송정역 주변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송정서초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Advertisement for 'Beijing Kyo-ya' restaurant, featuring various Korean dishes like 'Beijing Duck' and 'Beijing Noodles'.

Advertisement for 'Beijing Kyo-ya' restaurant, featuring various Korean dishes like 'Beijing Duck' and 'Beijing Noodles'.

Advertisement for 'Beijing Kyo-ya' restaurant, featuring various Korean dishes like 'Beijing Duck' and 'Beijing Noodles'.

Advertisement for 'Beijing Kyo-ya' restaurant, featuring various Korean dishes like 'Beijing Duck' and 'Beijing Noodles'.